



# Maison

## marie claire

2025 SEPTEMBER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켈리 웨어슬러가 디자인한 LA 집

**GARDEN**  
멸종위기 식물을 품은 발 라메 식물원

**JEWELRY & ART**  
프레드와 파이프콤마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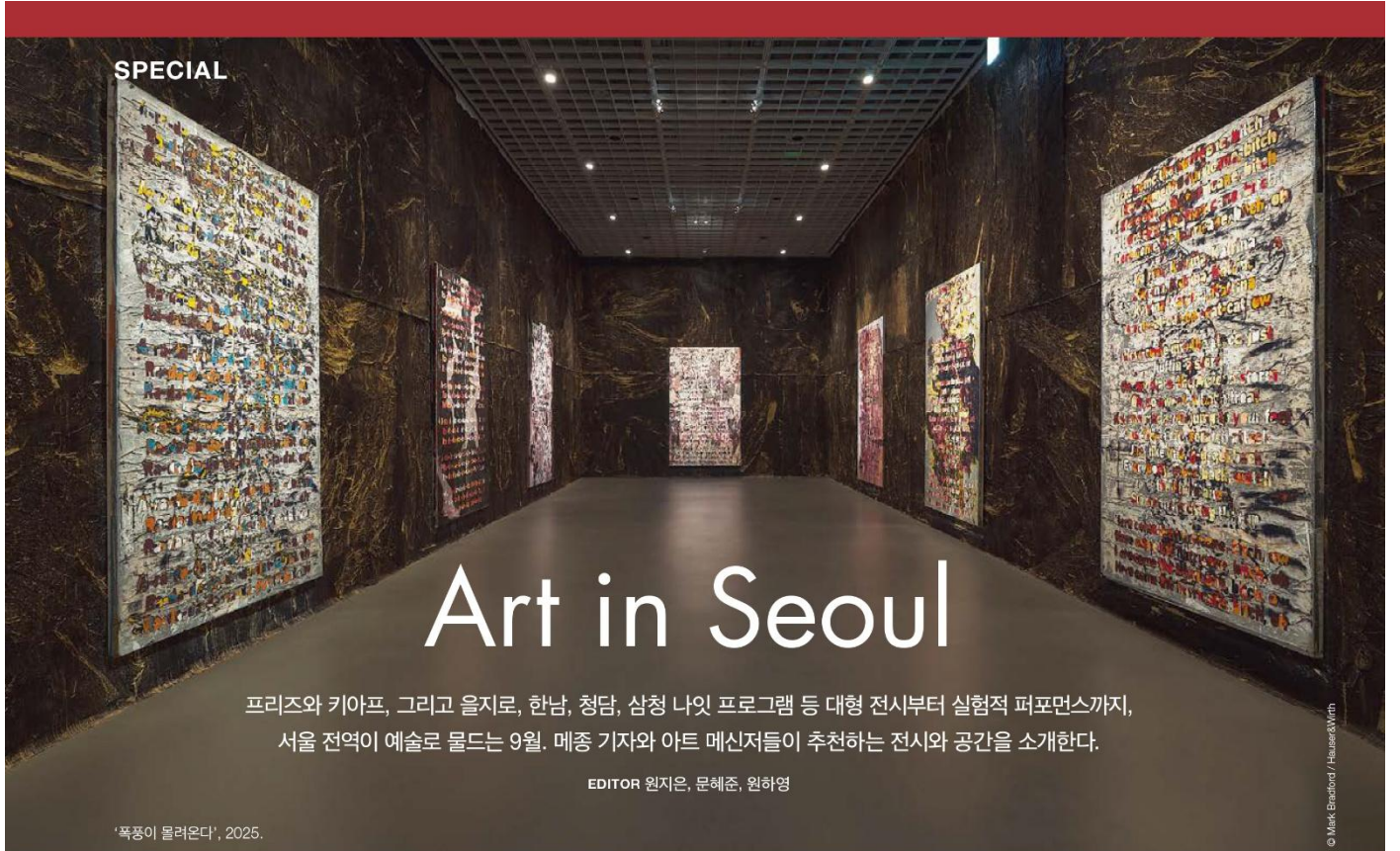
**ARCHITECTURE**  
초현실적인 건축

**BOOK IN BOOK**  
인피니, 바이스프링 침대 이야기

# ART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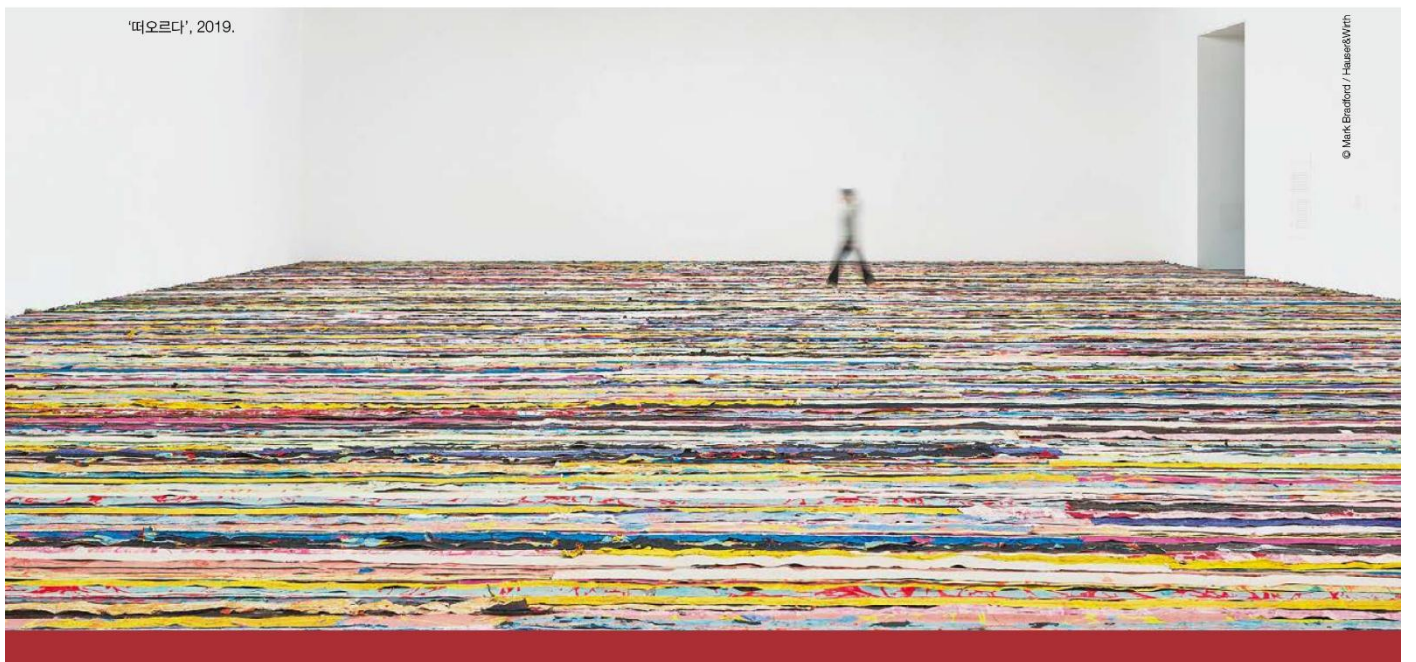
도심 속 예술 여행, 서울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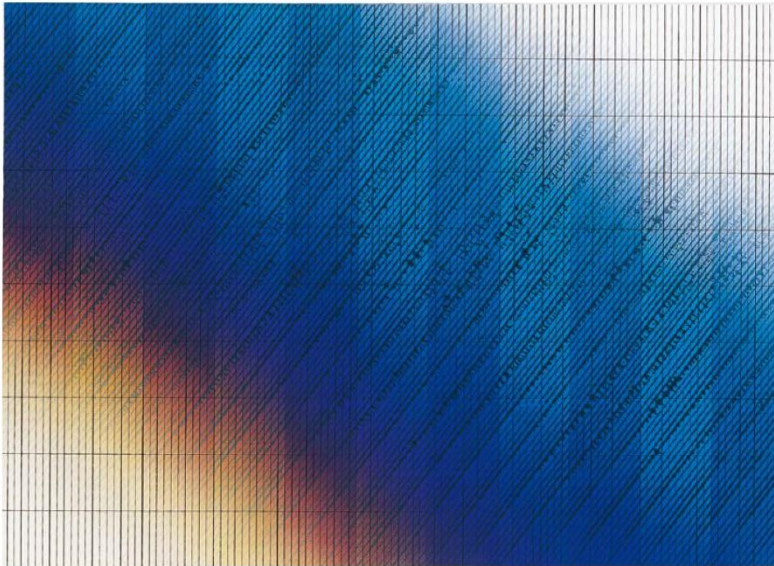




9월, 서울은 다시 예술로 물든다. 프리즈 서울(9월 3-6일)과 키아프(9월 3-7일)를 기점으로 도시 전역에서 전시, 프로젝트, 공연, 건축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이 촘촘히 펼쳐진다. 전시장 바깥에서 펼쳐지는 '프리즈 위크 서울'은 주요 갤러리의 오프닝, 작가 주도형 프로젝트, 미술관 기획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힌다. 특히 을지로 나잇(9월 1일), 한남 나잇(9월 2일), 청담 나잇(9월 3일), 삼청 나잇(9월 4일)에서 열

리는 야간 프로그램은 지역별 예술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형 갤러리의 개인전부터 신진 작가의 실험적 설치와 퍼포먼스, 아티스트 레지던시와 대안 공간 등 서울의 예술은 형식과 장소를 가로지르며 확장 중이다. 갤러리 디렉터, 큐레이터, 저널리스트 등 아트 인사이드들의 시선과 함께, 가장 예술적인 9월의 서울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 바라며 동시대 예술 현장 48선을 모았다.





**<vvgg: Art for Soul, Art for Living>**

그라운드서울 vvgg 4.24.-9.7

인사동에 자리한 그라운드서울이 새롭게 개관한 vvgg 갤러리는 감각적인 아트 스페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vvgg: Art for Soul, Art for Living> 전시는 한국 공예와 현대미술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총별로 공예, 아트퍼니처,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동시대 미감을 담아내고 있다. 요즘 미술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이어진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감각적인 메시지와 깊이 있는 조형 언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웅철** 웅갤러리 관장

하동철 'Light 91-11', 1991.

**페즈**

전시를 보러 한남동을 방문한다면, 지난해 말 한남동에 문을 연 페즈 Fezh를 추천한다. 태국 방콕의 커뮤니티 몰 '더 커먼스'에서 영감을 받은,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복합 공간이다. 재즈바,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어우러져 앞으로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특히 'BLUE CAT'은 파란 고양이 그림 문 안에 위치한 재즈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운영한 재즈카페 Peter Cat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름은 재즈의 상징 컬러이자 재즈와 블루스에서 자주 쓰이는 '블루 노트' 코드에서 따왔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매주 금, 토요일에는 재즈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건물 야외 공간에서도 공연이 열린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밤, 재즈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리만머핀 서울에서 선보이는 테레시타 페르난데스 개인전도 꼭 방문해보고 바란다. **손엘마** 리만머핀 파트너



페즈 외관



<NOWON> 전시 전경.

**<NOWON>**

디스위켄드룸 7.30.-9.6.

프리즈 서울 기간, 디스위켄드룸은 김한샘 개인전 <NOWON>을 선보인다. 서울의 실제 지역인 노원과 영어 구절 'No One Wins'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타이틀은 어린 시절 추억과 끝없이 반복되는 게임 속 승리 없는 상황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자체 제작한 레트로 게임 트레일러, 디지털 드로잉, 3D 프린트 조각이 어우러진 입체 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 회화의 물질성과 작가만의 독창적 조형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갤러리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함께 성장해온 국내외 아티스트의 리미티드 에디션 판화와 드로잉 작품을 깜짝 공개하는 원데이 팝업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9월 2일 한남 나잇에 맞추어 열리는 프라이빗 행사에서는 감각적인 케이터링과 함께 갤러리 전속 작가들의 미공개 작품들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유진** 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